

양림동 '동개비' 지상과 TV 방송 탄다



동개비
 나이 400살
 성격 호기심이 많고 겁이 많음.
 특징 호두처럼 생긴 코
 별명 사고뭉치 배달부
 단점 길지에 허당, 쓸데없이 경이 많음.
 좋아하는 것 호두, 스쿠터 타는 것, 하늘보기
 싫어하는 것 아이들
 하고 싶은 것 시간여행



광주 양림동 사직도서관 앞에 자리한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카페. /김미은기자 mekim@

충전 설화 모티브 제작한 토종 캐릭터
2014년부터 동화책·다양한 상품 개발

13부작 애니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제작
SBS 내달 12일부터 매주 일요일 방영



애니메이션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포스터.

'근대문화 보물창고' 광주 양림동에 가면 당신을 반기는 게 많다.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선교사 사택,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택,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같은 구불구불 골목길까지.

그 중엔 당신의 사연을 전달해줄 이도 있다.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다. '동개비'는 지난 2014년 탄생한 양림동 토종 캐릭터다. 400년전부터 전해내려오고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동화책, 다양한 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또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양림동 핫 스팟' 중 하나가 된 카페 겸 캐릭터 관광숍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동개비'가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공중파 TV에 진출한다. 13부작으로 구성된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가 오는 2월 12일부터 SBS를 통해 매주 일요일(오전 7시10분~30분) 방영된다.

'동개비'는 양림동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출발했다. 조선시대 양림동에 살던 선비 '정암'은 한양까지 문서 수발을 다닐 정도로 영특한 개 한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한양에 다녀오던 개는 전주 즈음에서 새끼 9마리를 출산한다. 모성애가 강한 개는 9마리 새끼를 한마리씩 물어 나르다 지쳐 죽고 만다. 이후 정암은 충직하고 모성에 깊은 자신의 개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캐릭터 개발 업체 (주)스튜디오 피쉬하이커(대표 김은빈·임베로나카)는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개비석'에 주목하고 캐릭터를 개발했다.

'개비(GABI)'라 이름 붙인 캐릭터는 9마리 새끼 중 한마리를 모티브로 했다. '동'이라는 이름에는 아이, 겨울, 움직임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 엄마 개가 문서, 상소문 등을 배달했다는 이야기에서 착안, 강아지에게도 '배달' 임무를 맡겼다. 동네 사고뭉치 '동개비'

는 시시콜콜 동네 일에 참견하며 배달에 나서고 수줍은 당신을 대신해 사연도 전해준다.

"이번에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은 동개비가 사람들의 감정을 배달하는 콘셉트예요. 엄마 개가 문서배달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동개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달하는 거죠. 동개비에게 배달을 부탁하는 이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연도 다양하답니다."

이은빈 대표는 "동개비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아서 방송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광주사직도서관 맞은편에 자리한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카페에서는 봉제인형, 에코백, 엽서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 30여종을 판매중이다. 또 동화책 동화 구연, 동개비 페이퍼 토이 만들기, 동개비 컬러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남구관광청과 연계해 '근대 예술 여행' 체험도 열고 있다. 커피 등 음료와 간단한 먹을거리도 판매한다.

카페에 마련된 동개비 편지지와 우표를 이용해 편지를 써 동개비가 서 있는 카페 앞 우체통에 넣으면 가게에서 수거해 직접 편지를 보내주기도 한다.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잡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동개비' 캐릭터 조형물은 양림오거리 인근에서 만날 수 있다.

2014년 처음 세상에 나온 '동개비'는 2015년 한국 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문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사업 등에 선정됐다. 앞으로 2017년 홍콩라이선스페어, 2017년 카툰엑스포 등에 참여해 해외시장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캐릭터 라이선싱으로 사업을 확대해갈 구상이다.

동개비 카페는 화요일~일요일(오전 10시30분~오후 8시) 문을 연다. 문의 062-651-30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붉은 닭으로 여는 새벽'

은암미술관 24일~내달 4일 신년기획 세화전

24일 성진기 교수
작가들과 '대화 시간'
김현옥 피아노 연주



▶허진 작 '계군고치'

미술과 음악, 인문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세화전(歲畵展)이 열린다. 은암미술관과 인문학 공동체 '카페 필로소피아'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전 '붉은 닭으로 여는 새벽'을 24일부터 2월4일까지 연다.

전시 주제는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근호, 김평준, 김해성, 박태후, 송필용, 이근표, 전명옥, 조동희, 주홍, 한희원, 허진, 황순철 등 작가 19명이 참여한다. 닭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서양화, 동양화, 서예, 수공예품 등 작품 45점을 선보인다.

'카페 필로소피아'를 운영하는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기획을 맡은 이번 행사는 전시와 작가와의 대화, 음악 공연이 결합된 점이 특징이다.

24일 오후 3시 개막식에서는 성 교수의 사회로 '붉은 닭의 영원'을 주제로 한 작가들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 작가들이 직접 전시작을 설명하고 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 김현옥 작곡가는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다. 닭 관련 기존 작품 1곡과 새롭게 창작한 곡을 선사한다. 깜짝 이벤트로 참여 작가 중 한명이 나서 피아노 즉흥 연주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닭그림 시연 행사도 펼쳐진다. 작가들이 연필, 붓 등으로 A4 용지 크기 작품을 그리면 현장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성 교수는 "이번 전시는 어서 빨리 닭이 울어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밝고 건강한 새벽을 맞고 싶은 염원을 담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출신 성악가 조재경 스페인 비냐스 콩쿠르 특별상

광주 출신 성악가 바리톤 조재경(사진)씨가 지난 20일에 열린 '54회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 결선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조씨는 62개국 총 511명여가 참가한 각 나라별 예선전 관문을 뚫고, 21명의 본선 진출자들과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비냐스 국제콩쿠르에서 모차르트 특별상을 안았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에서 모차르트 특별상 수상자



에게는 3000유로의 상금이 수여된다. 바리톤 조재경 씨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임해철 교수를 사사하고 독일로 유학,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현재는 하노버음대에서 박사(Soloklasse)과정을 수학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